

다산포럼



정근식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지금은 별로 사용하지 않는 단어가 되었지만,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에는 '5월 운동'이라는 개념이 존재한다. 1980년 5월, 열흘간 광주와 전남 일원에서 진행된 시민들의 투쟁을 당시 신군부와 언론은 '광주사태'라고 불렀는데, 이에 대한 반대 개념은 '광주민중항쟁'이었다. 두 가지 모두 1980년 5월의 사건을 지칭한다. 그 시민항쟁이 철저한 탄압에 의해 막을 내린 후, 민주화를 염원했던 사람들은 해마다 5월이 오면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와 함께 5·18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다양한 운동을 전개하였고, 그것이 결국 6월 항쟁을 이끌어 냈다. 제1차 민주주의의 이행이 이루어진 1988년 4월에 이르러 5·18은 '광주민중화운동'이라고 지칭되었다.

그러나 5·18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서유진과 5월 운동

을 중심으로 하는 시민들의 요구는 종식되지 않고 더 강력하게 전개되었다. 1994년 이른바 '광주 문제 해결 5원칙'이라는 한국형 민주주의 이행기 정의를 정립했고, 이에 기초하여 1995년 '광주 특별법'이 만들어졌으며, 1997년 선거에 의한 수평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이런 시민들의 민주주의를 향한 절기찬 투쟁은 제2차 민주주의의 이행과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을 만들어 낸 원동력이었다. 우리는 1981년부터 1997년까지, 또는 현재까지도 지속되는, 5월마다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민주주의를 향한 집합적 노력을 '5월 운동'이라고 부른다. 5월 운동은 진실, 책임, 배상, 명예, 기억을 핵심적 가치로 하고 있다. 한데 1990년대 초반부터는 그 가치를 세계화하고 진실을 왜곡하는 것에 대한 투쟁이 중심을 이루게 되었다. 5·18관련 단체와 시민단체들이 주축이었다.

서유진은 1993년, 50대 초반의 나이로 광주에 왔고, 5·18의 세계화라는 과제를 짊어지고 다시 아시아로 나간 5월 운동의 핵심 실천가이다. 1970년대 초반, 젊은이였던 그는 미국으로 가서 유신 체제에 반대하는 민주화운동에 투신했다. 1992년 대통령 선거 즈음하여 고

국으로 돌아왔으며, 5·18의 가치에 매료되어 광주를 찾았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친구가 되었으며, 광주를 고향 삼았다. 그는 '광주시민연대'와 홍콩 아시아인권위원회의 네트워크를 따라 1990년대 후반부터 동티모르, 캄보디아, 스리랑카,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등지에서 젊은이들에게 광주의 5·18과 5월 운동의 경험을 알리고 아시아의 민주주의와 인권 향상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다. 내전과 가난, 그리고 희망이 그의 화두였다. 광주의 경험이 아시아 민주주의의 교과서라고 역설했다.

1999년 크리스마스에 프놈펜에서 활동하는 그를 찾았을 때, 하루 5달러짜리 허름한 숙소에서 샌드위치 하나로 살고 있었다. 내전이 남긴 상처를 보듬고 살았지만, 항상 유쾌했고 거침이 없었다. 작년 연말, 19년 만에 캄보디아에 있는 그를 다시 찾았을 때 남부의 조그만 어항, 썬에서 한 달 200달러짜리 단칸방에서 여생을 보내고 있었다. 자신의 연금 600달러로는 여기가 최적라고 말했다. 중고 오토바이 한 대가 그의 전 재산이었다. 시간 날 때마다 그는 친구들을 격려했고 광주를 그리워했다.

극도로 건강이 악화된 상태에서 그는

지난 4월 광주로 돌아와 몸을 추슬렀는데, DMZ에서 진행된 인간 피 잇기 행사에 20만 명이 참여한 것을 무척 대견스럽게 생각했다. 그러나 었그제, 5·18 전야제가 끝난 바로 그 시각에 그의 부음을 들었다. 일순간 숨이 멎었다. 가장 존경하고 또 좋아했던 선배, 항상 든든하면서 또 '짤한' 마음이 들던 실천가는 그렇게 우리 곁을 떠났다.

지난 5월 5일,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생은 미완성이라더니, 내가 됐다. 집으로 가자"라고 썼다. 광주의 지인들이 그의 건강을 염려하여 캄보디아로 돌아가는 것을 말렸고 가족이 있는 미국 볼티모어로 돌아갈 것을 권유하자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튿날, 그는 다시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과 1932년 태국의 미완성 혁명을 언급했다.

12일에는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어제 내 사람 썬에서 살림살이를 완전 정리하고 오후에 프놈펜으로 이동, 캄보디아를 떠날 준비가 사실상 끝났다. 음... 왜...? 뭔가 또 요상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그는 광주와의 이별을 예감한 것이 틀림없다. 그렇게 자신이 사랑했던 것과의 이별을 고했다. 삼가 명복을 빌다.

社說

5·18 조사위 일단 출범시키는 게 중요하다

5·18 특별법 시행 이후 8개월 넘게 표류 중인 '5·18 진상 규명 조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정치권의 행보가 더디게나마 시작된 듯하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추천 위원 가운데 각각 한 명씩을 교체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최근 이미 추천했던 조사위원 네 명 가운데 이윤정 조순대 교수를 서예린 변호사로 교체해 추천했다. 이는 한국당이 오월민주여성회 회장 출신인 이 교수에 대해 '피해 당사자'라며 특별법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도 조사위원 가운데 한 명을 교체하기로 했다. 나경원 원내 대표는 어제 전북 김제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이 한 명을 교체했다. 한국당도 한 명을 교체해서 추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이 교체하기로 한 후보는 3성장군 출신의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

문회의 사무처장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한국당은 지난 1월 권 전 사무처장과 이동욱 전 갈간조선 기자, 차기환 전 수원지법 판사 등 세 명을 조사 위원으로 뒤늦게 추천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들 중 권 전 사무처장과 이 전 기자가 특별법상 조사위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임명을 거부한 바 있다.

최근 발표 명령이나 민간인 학살, 행방 불명 등과 관련한 중요한 증언과 자료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이를 검증할 조사위원회를 일단 서둘러 출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런 상황에서 조사위원 자격 문제를 놓고 대치해 온 정치권이 한 발씩 양보한 것은 그나마 의미 있는 진전이라 할 수 있다. 조사위원들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지만 5·18 진상 규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이제 정치권은 조사위원회가 하루빨리 출범해서 진실을 밝히는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연대와 상생의 길'은 정녕 요원한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제39주년 5·18 광주민중화운동 기념식에서 대구와 광주의 상생을 도모하는 '달빛동맹'의 의미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구 달구벌과 광주 빛고을은 '달빛동맹'을 맺었고 정의와 민주주의로 결속했다"며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용서와 화해의 길"이라고 밝혔다.

"대구와 광주는 역사 왜곡과 분열의 정치를 반대하고 연대와 상생 협력을 실천하고 있다." "달빛동맹의 정신을 통해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 문 대통령의 말을 들으며 연대와 상생, 용서와 화해의 의미를 다시 되새겨 본다. 그러나 작금의 정치 현실은 아무래도 국민 통합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오히려 분열과 갈등이 끊임없이 지속되는 가운데 막말만 난무하고 있다. 너도나도 자극적인 말을 통해 지지층 결집을 노린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를 '좌파 독재'라고 비난하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도둑놈들한테 국

회를 맡길 수 있겠냐"고 화답(?)했다. "똥을 잘 모르고 쓴 말"이라며 즉각 사과하라는 했지만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 지지자들을 비하하는 언어('달창':달빛창녀단)를 사용해 거센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황교안 대표가 국회에서 5·18 특별법을 다루지 않고 다시 광주에 가려 한다면 '거의 사이코패스 수준'이라고 했으며 김형아 한국당 의원은 문 대통령을 겨냥해 '한센병'을 언급했다가 사과했다.

자고 나면 정치권의 험한 말들을 들어야만 하는 우리는 대통령이 언급한 '연대와 상생'으로 가야 할 화해의 길'이 이리도 요원한 것인지 답답할 따름이다. 험하고 거친 막말은 갈등과 증오를 증폭시키며 분열의 사회를 만들 뿐이다. 따라서 막말로 승부를 보려는 정당과 정치인에 대해서는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 가 다음 선거에서 엄중하게 심판해야 할 것이다.

교단에서

'포기'라는 미끼



김진우
일신중 교감

5월은 일 년 중 기념일이나 행사가 가장 많은 달이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시작으로 31일 바다의 날까지 10여 개가 넘는다. 학교도 체육 대회, 수학여행, 수련 활동, 진로 체험 등 화려한 날씨만큼 활기찬 교육 활동이 교내외에서 펼쳐진다. 이러한 활동으로 추억을 만들고,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체득한다. 하지만 학생, 학부모, 교사의 공감대 속에 이뤄져야 하는 교육계는 한 가지 교육 정책을 놓고도 다양한 견해가 있기에 참으로 어려움이 많다.

중간고사(학기별 1차 지필 고사)를 앞두고 한 학생이 유형성 ○○○ 진단을 받았다. 전염의 파급이 크고 시험을 목전에 두고 있었기에 담임 교사, 시험 담

당 교사, 보건 교사가 모여 출결 문제를 협의하였다. 전염성이 우려된다는 의사 소견이 있을 경우 등교 중지를 시키고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학부모는 학교의 몇 가지 제안에 쉽게 동의하지 않았다. 시험은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치르도록 하였다.

얼마 후 그 학부모가 건의문을 보내왔다. 학교 체육 대회 때 부모 몰래 서클 렌즈를 꺼서 눈이 아프기 시작했기 때문에 보건 시간이나 다른 시간에 서클 렌즈의 문제점을 홍보해 달라는 건의였다. "결코 운이 나빠서 눈병을 얻은 게 아니라 사실과 사회의 관리 시스템과 안전 기준의 문제를 개인의 운에 맡겨서 책임 지우기 전에 그 중간에서 학교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음을 알리고 싶다"고 했다. 옳은 말씀이다. 학교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교육청의 학생 생활 규칙 개정 권고 사항 중 '용모 및 개성 실현의 자유 보장 규정'을 보면 두발, 복장, 장식, 화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학생 스스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학교에서 교복을 정한 경우, 교복을 입도록 교육적 지도를 할 수 있으나

징계나 처벌 중심의 지도는 지양하고, 교복 착용 시기도 학생 개인이 계절별 특성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규칙들이 권고 사항이라고 하지만 '학교 민주 인권 진화도 평가 계획'에 학교 평가 지표로 반영되어 있다.

또 한 가지 사례는 학습 부진 학생 지도였다. 교육법 시행령에는 학습 부진 학생을 진단하고 지도하게 되어 있다. '두드림 학교'는 복합적인 요인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기초 학력 부진 학생을 위한 통합적인 지원 시스템이다. 한 학부모에게서 연락이 왔다. 진단 시험 자체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교육의 내용이 무엇인지, 교육청의 책임자를 만나러 가겠다고 했다. 설명하고 마무리하는데 며칠 걸렸다. 학부모의 요구로 끝내 이 학생은 지도 대상에서 빠졌다.

작가 정채봉은 간결하면서 무명 적삼 같은 글로 우리에게 많은 울림을 주었다. 아랫글은 그의 '낚시밥' 전문이다.

악마네의 우두머리가 악마들의 사기를 고취시키기 위해 '인간 낚시 대회'를 열었다. 악마 중에서 내로라하는 악마들이 서로 다투어 인간 세상으로 낚시질을

떠났다. 저녁 때가 되자 낚시를 떠났던 악마들이 낚시 바구니를 들고서 돌아왔다.

우두머리 악마가 각자의 수확량을 조사하였다. 그런데 놀라운지. 한 악마의 낚시 바구니에서는 꺼내어도 꺼내어도 인간이 끝없이 쏟아져 나오지 않는가. 우두머리 악마가 말했다. "이번 낚시 대회의 대상은 말할 것도 없이 네 차지이다. 그런데 무슨 미끼를 썼길래 이렇게 많은 인간들을 낚아 왔느냐?" 대상 수상자 악마가 대답했다. "포기라는 미끼를 썼습니다요. '너는 이미 늦었다' '너는 이제 안 된다' '너는 쓸데가 우리 쪽밖에 없다' 이런 낚시밥을 썼더니 이렇게 많이 떨어 왔구먼요."

세상은 좋아지고 있다는데 수많은 생활 터전에서 부딪치고 쪼개지고 더 날카로워져서 힘들다고 한다. 좋은 계절에 학부모 관련 여러 미담 사례를 두고 극히 일부 어두운 이야기를 꺼내 마음이 무겁다. 하지만 지금 우리 교단에는 머리를 돌려서 못 본 척, 고개를 숙이고 안 본 척, 시비의 대상은 안 들은 척, 이런 포기 미끼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

기 고

육체노동자 가동 연한 판결과 보험금



김양식
손해보험협 서부(호남총청)지역 본부장

17세기 영국의 경제학자 토머스 맬서스는 저서 '인구론'에서 빈민이 증가되면 국민의 생활 수준을 어렵게 한다고 보고 인구 증가를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인구의 감소와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일례로 배우터인 학교의 폐교가 늘어나 교사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도 그렇고 저출산으로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부인과 병원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도 그렇다. 또한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어 국민 개개인에게 가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이에 따른 가계 소득의 감소는 소비력을 약화시켜 내수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쳐 국내 경제 성장의 크나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과거 50여년간 이어져 온 인구 팽창 사회가 끝나고 인구 수축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는 얘기가. 바야흐로 고령화 사회의 공포가 우리의 삶 곳곳에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현실 하에서 대법원은 지난 2월 21일 평균 연령, 정년 연장 등 사회·경제적 변화를 감안하여 육체노동자 노동 가동 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1989년 12월 노동 가동 연령을 55세에서 60세로 상향한 이래 무려 30년 만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65세까지 일할 수 있다는 사회적 합의의 기초가 마련된 것이다.

근본 대법원 판결은 보험 표준 약관의 취업 가능 연한에 영향을 미쳐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의 취업 가능 연한을 육체노동자 가동 연한과 동일하게 상향하는 보험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을 개정해 이번 달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취업 가능 연한은 노동을 통해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최후 연령으로 손해 배상 금액 산정의 기준이 된다.

이번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 개정으로 사망·후유 장애 상실 수익액 취업 가능 연한, 사망·후유 장애 위자료 감액 연령, 부상 휴업 손해액 취업 가능 연한 등이

현행 60세에서 각각 65세로 연장됐다. 우선 사망시 위자료의 경우 사망자 본인 및 유족은 사망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0세 미만인 경우 8000만 원에서 65세 미만인 경우 8000만 원으로, 사망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0세 이상인 경우 5000만 원에서 65세 이상인 경우 5000만 원으로 위자료 지급 기준이 변경됐다.

사망시 상실 수익액도 취업 가능 연한을 65세로 하여 취업 가능 월수를 상향 조정했다. 취업 가능 연한이 사회 통념상 65세 미만인 직종에 종사하는 자의 경우 해당 직종에 타당한 취업 가능 연한 이후 65세에 이르기까지의 현실 소득액은 사망 또는 노동 능력 상실 당시의 일용 근로자 임금을 인정하도록 하였다.

한편, 부상시 보험금은 각 보장 종목별 보험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되던데, 대인 배상 I 은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급별 보상 한도 내에서, 휴업 손해는 휴업 일수의 산정시 취업 가능 연한을 65세를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부상시 위자료도 노동 능력 상실률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하게 되는데, 노동 능력 상실률이 50% 이상인 경우 후유 장애 판정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

4500만 원×노동 능력 상실률×85%를 적용하고, 후유 장애 판정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 4000만 원×노동 능력 상실률×85%를 적용하도록 개정했다.

또한 가정 간호비 지급 대상인 경우에는 후유 장애 판정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 8000만 원×노동 상실률×85%, 후유 장애 판정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 5000만 원×노동 능력 상실률×85%를 적용하도록 했다.

향후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은 명약관화하다. 또한 고령화 사회로 전직됨에 따라 보험 소비자의 보험에 대한 니즈(needs·생활자의 생리적, 신체적 욕구)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궤를 같이하여 보험 산업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 또한 보다 더 커질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다양한 사회 및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금융 당국, 보험업계의 지속적이고 부단한 제도 개선 및 상품 개발 등의 노력과 더불어 보험금 심사 시스템 및 지급 매뉴얼 업그레이드 등 고령화 사회에 걸맞은 선제적인 대응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無等鼓

미국 소설가 덴 브라운이 지난 2003년에 쓴 '다빈치 코드'는 시작과 끝이 같은 공간에서 이뤄지는데, 바로 파리 '루브르 박물관'이다. 기호학 교수인 랜덴은 우연하게 살인 사건에 휘말리게 되고, 사건 현장에 남겨진 기호를 단서 삼아 누명을 벗기 위한 여정을 이어 간다. 그리고 그 뒤를 경찰이 뒤쫓는다. 이 소설은 2006년에 같은 제목의 영화로도 제작됐다. 소설 속에는 '예수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결혼해 아이를 가졌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예수가

최후의 만찬에서 사용했다는 성배(聖盃) 역시 '예수의 혈통을 품은

을 활용하는 것도 그래서였을 것이다.

루브르 '유리 피라미드'를 설계한 중국계 미국 건축가 이오 밉 페이(貝聿銘)가 최근 향년 102세로 타계했다. 이번에 부고 기사를 접하고서야 '유리 피라미드' 설계자의 이름을 알게 됐다. 그는 '유리 피라미드'를 비롯해 워싱턴 국립미술관 동관, 일본 시가현 미호박물관, 중국 쑤저우 박물관 등 많은 미술관과 박물관을 설계했다. 1983년에는 '건축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수상했다.

'유리 피라미드'는 1989년 프랑수아즈 사르트르의 '무의미'를 주제로 한 전시를 위해 루브르 박물관 여자의 자궁' 즉 마리아 막달레나를 가리킨다고 말한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 소설이 번역되고 영화가 상영되자 개신교의 거센 반발이 일기도 했다.

소설은 루브르 박물관 내 '유리 피라미드'에서 끝을 맺는다. 수년 전 파리에 갔을 때 '유리 피라미드'를 보며 감회가 남달랐던 것도 그 때문이다. 소설이나 영화를 읽거나 본 여행자들에게는 이게 단순한 조형물이나 스토리텔링을 품은 상징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여행자들이 너도나도 '유리 피라미드'를 배경으로 기념사진

루브르 피라미드

관 재정비 프로젝트를 통해 탄생했다. 유리외 강철 등 첨단 소재로 만든 '유리 피라미드'는 설계 당시 프랑수아즈 사르트르의 반발에 부딪혔지만 현재는 박물관의 상징물로 자리매김했다. 건축계의 철학을 담은 건축물은 도시를 아름답게 하고, 공간의 품격을 높인다.

광주 건축물가운데 여행자들의 발길을 끌만한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아니라 광주의 정체성을 담은 좋은 건축물이 들어서길 기대한다. /송기동 문화2부장 song@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관남로 224		광고문의 062-227-9600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역(구독 신청 배달 안내))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광주신문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문화부 220-0661	문화사입금 220-0541
정취부 220-0632	체육부 220-0633	체육부 220-0633	(FAX 222-0195)
경제부 220-0663	예향부 220-069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사회부 220-0664	사진부 220-0693	사진부 220-0693	업무 220-0551
전남본부 220-0642			(FAX 222-0195)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